‘공격적 현실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위협 혹은 공동 기회를 앞두고

MOTIN DYLAN (강원대학교)

1. 서론

미국 텍사스대학 요누트 포페스쿠(Ionut Popescu) 교수는 2019년 출간된 ‘미국 대전략과 공격적 현실주의의 부상(2019)’이라는 논문에서 현 세계의 정치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파산한 것이라는 직설적 판단을 내렸으며, 강대국 간 경쟁 시기(great power competition)에 미국은 과거 제도주의나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와 같은 1990년대 전통 주류 개념을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바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고 강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세계를 무대로,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급속도로 세력균형을 변화시켰기에 본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 그리고 한일관계를 대상으로 중국 세력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관계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바탕으로 한일의 대중 외교정책을 논의하며, 공격적 현실주의가 선호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을 소개 및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중국 부상의 과정과 함의를 서술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의 대응 과정을 살펴 한일 관계와 한일 대중 정책에 대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런 논의에서 현실주의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격적 현실주의와 봉쇄

2-1 기본 이론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핵심은 다섯 가지 가정이 있다(Mearsheimer 2014). 첫째,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ic) 체제이다. 즉, 각 국가 위에 군림하는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력으로 방어해야 한다. 둘째, 각 국가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는 폭력 가능하고 군사력으로 다른 국가에 고통을 줄 수 있다. 셋째,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현재 지도자의 의도를 알 수 없기에 미래 지도자의 의도 또한 예측할 수 없다. 넷째,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는 국가로서 생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보다 안보를 추구한다. 다섯째, 국가는 합리적이며, 비용 및 이익을 고려하고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행위자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무정부상태의 국가 간 의도를 알 수 없고, 공격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자력으로 불가하다면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위협국에 대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자가 봤을 때 국가는 세력 분포에 자기 몫을 증가시키려고 하며, 안보는 드문 자원이다.

강력한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하며 이는 군사력에 우세하고, 핵 보복 능력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특정 지역에서 세력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적

지위를 얻으면, 지위를 얻은 국가를 두고 '잠재 패권국'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지역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은 잠재 패권국에 대한 극심한 안보 경쟁을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1] 이러한 잠재 패권국의 부상을 막는 정책을 '봉쇄'라고 한다.

2-2 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사용해야 할까?

공격적 현실주의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논의되는 분야다. Labs(1997)에 따르면 강대국은 세력과 영향을 팽창할 기회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Mearsheimer(2014)는 프랑스혁명 때부터 강대국의 팽창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독일은 어떤 인식장애나 오해가 아니라 지역 패권을 얻기 위하여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Lieber 2007). Elman(2004), Kim(2019), Zakaria(1999)가 지적하였듯이 19세기 미국의 부상에 관하여 방어적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보다 설득력이 없고, 모틴(2021)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사용하여 근세 유럽 정치를 해석하였다.

국제관계 이론 연구자들은 보통 과거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만, 국제관계학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Fukuyama(1989; 1992)와 같은 그동안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확산으로 인한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을 예상하였으며 강대국 간 갈등의 소멸, 무역의 상호의존 관계 우위, 세력정치의 구식화,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peaceful rise),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 탄생 등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와 달리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 대하여 비극적인 진단을 하였다. Mearsheimer(2001, 10장)는 특히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측을 하였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군사력에 투자할 자원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웃 국가보다 우세한 군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중국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며, 이웃 국가들과 미국은 그러한 잠재 패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균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적 사상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와 달리 세력과 안보보다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유주의 질서를 도전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질서를 유지할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 Zoellick 2005)'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에는 근거가 없었고, 단지 대중 관여정책이 중국군을 증강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강대국 간 경쟁은 또다시 세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격적 현실주의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을 가장 잘 설명해줄 이론으로 보인다.

3. 중국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

현재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이므로 국제체제는 삼극체제(tripolarity)이다. 현 체제의 특색은 지리적 분포이며,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이고, 아시아에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은 지역 잠재 패권국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잠재 패권국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잠재 패권국 사례는 합스부르크 스페인, 루이 14세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프랑스,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나치 독일, 그리고 냉전 소련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계의 핵심 목적은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국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중유럽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현대 미국의 동맹체계는 배타적 러·중 영향권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Quad)'라는 단체를 통해 중국을 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력만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이중봉쇄(dual containment)를 주도할 수 없고, 동맹국의 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패권을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보다 군사력과 잠재세력 측면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에 대한 견제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세력을 키워야만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의 잠재 패권국이 된 상황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같은 강력한 패권국이 생기면 주변의 약소국은 독립성과 외교정책의 자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상하는 강대국은 안보를 얻기 위해 이웃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쿼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쿼드는 아직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와 같은 통합된 기관이 아니지만, 호주와 일본, 인도와 일본도 쌍방적으로 안보 협력을 발전하고 있듯이, 중국 세력이 계속 증강한다면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체계는 나토와 비슷한 다자동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은 점차 군비를 증가하고 있다.

4. 중국문제와 한일 관계의 전개

한일 대중정책 사례에 봉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 결과로 한일 관계와 한일의 대중 정책에 대한 함의를 밝혀 현실주의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은 국방을 위하여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추후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에 현실주의에 입각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쌍방 혹은 미국을 포함해 삼국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있다. 한일 간 역사에 대한 갈등은 심각하지만 공동 안보 전략을 통한 이점으로 역사적 논란은 점차로 해소될 것이다.

②. 중국은 쿼드나 균형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경제협박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갖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축소하여 '디커플링(decoupling)'을 촉진하면 된다. 중국 문제에 있어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경제적으로는 계속 교류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외교정책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군사력에 발전할 자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듯, 중국을 봉쇄하려면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을 소외해야 한다.

③. 일본의 헌법 제9조(평화헌법)는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제9조는 제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한 헌법인데, 오늘날 일본은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헌법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균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급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제9조는 점점 비판을 받을 것이다.

④. 세계정치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 냉전 때의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을 재건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 맥락에서 서울과 도쿄는 워싱턴과 함께 협력하여 양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중국의 영향을 제한·축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서유럽국가들(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해군력을 투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일은 유럽과 교류하여 군사와 무기 지원 받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고 태평양에 집중해야 하나, 미국의 철수를 가속화 하려면 이란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일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중국과 북한은 동맹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천박한 우정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동북아 세력 불균형을 교정할 기회가 있다. 북한이 편을 바꾸고 한일의 편으로 바꿀 경우, 북한의 대규모 병력과 핵능력은 한국과 일본에게 유능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에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여 대북 관여와 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모틴 딜런. 2021. "프랑스의 근세 팽창정책 결정요인 연구: 루이 14세 시기 팽창과 균형, 책임전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7(1): 179-215.

Elman, Colin. 2004. "Extending Offensive Realism: The Louisiana Purchase and America's Rise to Regional Hegemon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4): 563 - 576.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16: 3-18.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Kim, Dong Jung. 2019. "A Prologue to Manifest Destiny: Why Britain Allowed the United States' Unchallenged Rise in North America, 1836 - 1848."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4(3): 477 - 506.

Labs, Eric J. 1997. "Beyond Victory: Offensive Realism and the Expansion of War Aims." *Security Studies* 6(4): 1 - 49.

Lieber, Keir A. 2007.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32(2): 155 - 191.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Mearsheimer, John J.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 New York: W. W. Norton.

Popescu, Ionut. 2019. "American Grand Strategy and the Rise of Offensive Realis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4(3): 375-405.

Zakaria, Fareed. 1999. *From Wealth to Power: The 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Zoellick, Robert.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6 - 9.